



현대차 팔리세이드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현대·기아·쌍용만
생산·내수 '好실적'
SUV서 갈린 희비**

올해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 판매·수출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체별로 희비(喜悲)는 갈렸다. 팔리세이드·싼타페(현대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쌍용자동차), 니로(기아자동차) 등 인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을 둔 업체들만 웃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국산차 생산은 전년보다 9.8%, 내수판매는 1.9%, 수출은 12.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업부는 "현대 팔리세이드(2018년 11월 출시)와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2019년 1월) 등 SUV 신차 판매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 팔리세이드는 올 1월 6133대 생산돼 국내에서 5903대 팔렸다. 2대 수출됐으나 이는 시험용 등으로 추측된다. 신타페 실적은 생산 1만1746대, 내수판매 7001대, 수출 4724대다.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국내에서 2963대 팔렸고 265대 수출됐다. 렉스턴 스포츠 칸은 내수판매 1339대, 수출 46대다.

1월 생산 지표만 놓고 보면 현대는 전년보다 14.4%, 기아자동차는 15.9% 늘었다. 두 업체의 합계 점유율은 79.1%다. 한국지엠(GM)은 4.7%, 쌍용은 21.1% 증가했고 르노삼성엔 노동조합 부분파업 등의 영향으로 38.0% 감소했다.

전년 대비 내수판매는 현대(17.5%)와 쌍용(14.5%)만 늘었다. 기아(-2.8%), 한국지엠(-35.6%), 르노삼성(-19.2%)은 줄었다. 특히 한국지엠은 주력 모델인 스파크(-1183대)와 말리부(-361대), 올란도(-476대·단종) 등으로 감소 폭이 컸다.

뉴스스

“‘카드수수료 개편’ 가맹점 부담 年 7800억 원 낮아져”

우대가맹점 5700억·일반가맹점 2100억원 수수료 절감

지난달 말부터 적용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 78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라 1월 말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 가맹점에 통보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책 발표시 추진한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치인 8000억원에 근접한 것이다.

가맹점별로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 구간이 확대된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700억원 가량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수수료 개편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씩으로 수수료 가 인하됐다.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대로 0.8%(체크 0.5%), 1.3%(체크 1.0%)씩의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도 1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집계됐다. 우대구간이 확대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에는 우대가맹점 비중이 84%에 그쳤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 들었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 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연간 21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구간별로 연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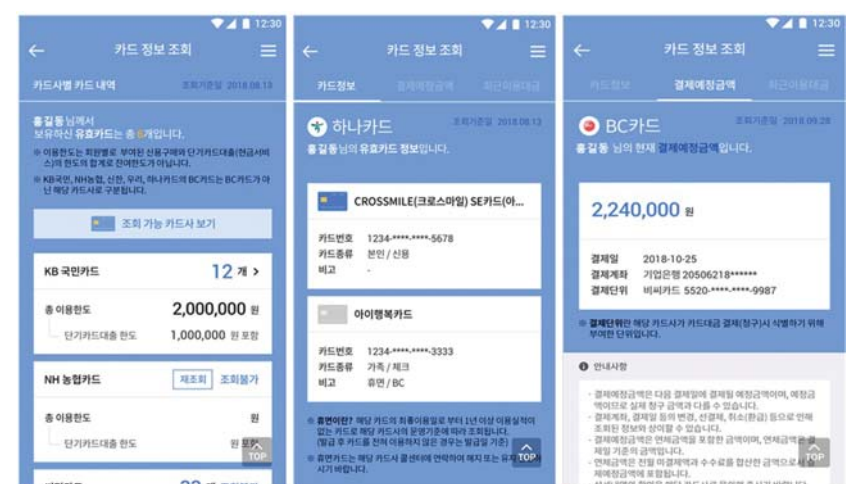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기준에 연매출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은 수준은 평균 2.26~2.27%로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주장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실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다.

반면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도 개선토록 했기 때문이다.

기준에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많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에서 한번에 확인한다”

앞으로 휴대폰에서 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휴대폰에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인터넷(PC)에서 가능하도록 선보인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60일간 총 13만6500건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약 2194건이다.

앞으로는 이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정보와 잔여포인트, 소액결제포인트 등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15개 카드사다. 8개 전업카드사(BC·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와 7개 겸영카드사(KIBK기업은행·NH농협생명·씨티은행·SC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다.

해당 카드사 고객은 '내 계좌 한

눈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 인포 나 내카드 한눈에' 등 검색어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기존 이용자라면 신규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번호와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중 선택 가능하다. 간편번호 6자리를 등록한 뒤 별도 인증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만으로도 접속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서비스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제주·전북·산업은행과 K뱅크, 카카오펀드는 서비스하지 않는다.

또한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상계좌'의 잔고이전과 해지가능 등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서민금융기관 등으로 올해 3분기 중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비활동상계좌란 1년 이상 입·출금 등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다.

뉴스스



쿠쿠전자가 선보이는 초고온 인덕션레인지 쿠쿠전자가 19일 서울 중구 비랑스커피에서 특허기술 '초고온 모드'를 탑재한 '초고온 하이브리드 인덕션 레인지'의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공정·품질 개선사업’ 과제 접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과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시키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가 전국적으로 총 428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세부사업으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과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 제한 없음) 중, 공정 개선 과제의 경우는 공정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은 뿌리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과 뿌리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목적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았거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